

남원 '젊은 도시' 건설 청신호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도내 최다 선정... 국도비 7억여원 확보

남원시가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총 8개 사업에 국도비 7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북에서 최다 규모로 남원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만들어 보다 젊은 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한 공모사업은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로 각 유형별 사업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8개 사업 중 지역정착 지원형은 농업법인, 단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창업능을 육성하고 화장품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청년창업아지트, 청년창업가 공동 업무공간 조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민간취업연계형은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남원관광PD,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

하)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며, 이달 중으로 지원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사업장 선발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시정 목표를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들어선다

순창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 투입... 센터 건립 · 관련 장비 등 구축

순창군이 군의 가장 큰 자산업 발효 산업을 미생물산업까지 확장해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첫 단추를 끼운다.

군은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사업의 마중물이 될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기본설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80억원을 투입해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배양 및 생산 관련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발효미생물산업화 및 발효식품제조업체 공급활성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종균 · 반제품원료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순창군 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내 부지 3,714㎡, 지상 2층 연면적 1,650㎡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미생물산업의 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산업화를 진행해온 순창군 전략에 잘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순창은 전통발효식품에서 토종발효 미생물을 발굴하는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미생물 4만여 균주를 확보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최적지로 뽑혀 왔다.

관련 시장도 무궁무진하다. 발효미생물 소재 수입에 6,500억원, 장류 주류 미생물 440억원 등 총 7,0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사업이 완성되면 발효종균 상

품화 및 사업화를 위해 중군산업 선도기업 및 스타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100개가 넘는 기업에 맞춤형 발효미생물공급, 발효미생물 산업화 기술이전을 통해 수입미생물 시장을 대체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근 발효미생물산업화 관련 2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도 진행해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순창의 미생물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이다"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의 세계적 발효미생물산업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수질개선 도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속도

임실군이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관촌면 슬udge개에서 관촌 재래시장 입구까지 임실하수처리장으로 이송 · 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4.8km의 하수관로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임실 ·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관촌면 신전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임실 ·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이 투입되며, 임실을 감성마을, 관촌면 신전 · 도봉마을, 오수면 용정 · 내동마을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10.65km의 하수관로를 설치한다.

심 민 군수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원활히 이송 ·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방류됐던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섬진강에 방류할 수 있어 수질개선과 공중위생 향상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해야 "

전평기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은)은 오는 30일까지 제22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는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와 17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25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전평기(시진) 의원은 동절기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 및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따르면 남원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경로당은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이자 쉼터, 사랑방 같은 곳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농한기에는 평소보다 경로당 이용률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준비와 설거지, 경로당 청소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방문

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요금을 거리요금제에서 2천원 상한요금제로 개선해 시행중에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천원 상한요금제에서 1천원 단일요금제로 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천원 단일요금제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많은 시 · 군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

한편 윤지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성과 소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이웃사랑 잡초제거 봉사활동 실시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해운, 조완열)는 16일 지사면 도로변 및 지사면 종합복지회관 주변 풀베기작업 등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위원 15여명은 이른 시간부터 도로변(군도 및 지방도 4개노선 9.2km구간)과 복지회관 주변 공원 내 무성한 잡초제거를 실시했다.

또한 오후에는 홀로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8세대를 방문하여 형광등(환풍기, 욕실등) 교체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했다.

조완열 위원장은 "바쁜 영농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환경정화와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지사, 주민모두가 행복한 지사면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는 2016년 5월 구성되어 정기적인 목욕탕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변 풀베기 제조작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조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구슬땀

내달 15일까지 가로수 1만4700여주 · 화단 88개소 정비

순창군이 읍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대한 대대적인 가로수와 화단정비 작업에 들어가 시가지 경관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로수와 화단정비 사업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도로변에 식재된 소나무, 은행나무, 백일홍,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총 1만4,700여주 가로수에 대한 덩굴 제거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도로 이정표 및 표시판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 잔가지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도로변 가로경관을 저해하거나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는 칠펙물, 환산덩굴, 가시박 등 덩굴류를 말끔히 제거해 깨끗한 도로변 생태계 유지 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88개소의 화단 정비는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한다. 군 관계자



는 이번 사업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변을 조성해 쾌적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식재한 시기가 오래되면서 교통장애는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비 기간에 가로수 잔가지를 중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국가 암검진 받으세요"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국가 암검진 조기 수검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관내의 각종 행사시 ▲캠페인 및 거리홍보 ▲아파트 승강기, 전광판 영상물게시 ▲개인별 전화독려 ▲문자메시지 · 우편발송 등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국가 5대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 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간암, 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짝수년도 상관없이 매년 해당),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620-7926/792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